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8. 9.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환경녹지과
담당	과장 석상춘, 저탄소에너지팀장 김수정, 담당 민동욱(032-453-7242)

“연간 10만6천kW 전력생산 태양광 준공…그린뉴딜 사업 박차”

청라BRT통합차고지 관리동 등 옥상에 80.58kW 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준공
내년 아트센터인천에도 태양광 설치 추진… “친환경 IFEZ 조성에 최선”

-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청라국제도시 청라BRT통합차고지에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본격 전기 생산에 들어갔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착공된 서구 파랑로 105 청라BRT통합차고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가 최근 완료돼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.
- 관리동 및 제 1·2정비동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80.58kW 규모로 연간 10만6천kW의 전력을 생산한다. 이는 매년 약1천4백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47.5톤을 저감하고 30년생 소나무 7천200그루의 식재 효과를 낼 수 있는 규모다.
-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.
- 인천경제청은 내년 아트센터인천에 총 140kW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추

진할 계획이다.

- 한편, 인천경제청은 IFEZ 내 주택 90가구에 대해 태양광 270kW 규모의 보급 사업을 진행 중으로 연간 34만8천k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. 세대 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“앞으로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, IFEZ를 친환경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